



소식지 제31호(2000년 10월)

발행인: 최재용, 편집인: 김종복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영어학부내
 전화: 02-961-0892/0211 전송: 02-965-8004
 e-mail: jongbok@khu.ac.kr, URL: <http://society.kordic.re.kr/~ksli>

㉠ [언어와 정보] 4권 1호 출간 및 논문 수시 모집

[언어와 정보] 4권 1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아직 이를 수령하지 못하신 분에게는 학회 당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언어와 정보 논문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투고하실 원고는 자유로운 스타일로 하시 면 되며, 아래로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고방법: 전자우편 ynoling@hanbat.chungnam.ac.kr
 일반우편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언어학과 노용균

[언어와 정보]는 신속한 심사와 게재여부 결정, 세계적 수준의 논문 평, 국제적 가독성이 있는 포스트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어져 세계 어디에서나 읽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언어학 학술지입니다.

㉡ 회원 가입 및 학회비 납부 안내

2000년도 학회 연회비는 정회원 20,000원, 준회원 10,000원이며, 평생회비는 200,000원입니다. 학회 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평생회비 납부에**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학회와 협력관계가 있 는 생성문법학회, 한국언어과학회, 현대문법학회에 등록하신 분들은 정회원 10,000원의 특혜가 있습니 다. 연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한국언어정 보학회 (김종복)**, 계좌번호: 012336 -0071907, 경희대 서울우체국

2000년 회비 납부 현황:

- **평생회원:** 1999년도 평생회원: 최규련(연세대), 최재용(고려대), 이영현(조선대), 김경학(수원대), 윤애선(부산대), 최기선(과학기술원) 2000년도 평생회원: 이영현(조선대), 김종복(경희대), 이 남근(조선대), 김경애(한경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류병래(충남대), 최현숙 (영남 대), 이기용(고려대)
- **정회원:** 강우순(경희대), 김종현(서강대), 곽은주(세종대), 남승호(서울대), 노용균(충남대), 문승 철(항공대), 염재일(홍익대),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윤재학(경희대), 이예식(경북대), 이익환(연세대), 장석진(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재현(충북대), 채희락(한국외대), 홍민표(명지 대), 이해운(서울대), 김용범(광운대), 강범모(고려대), 정 찬(동서대), 조세연(호남대), 홍성룡 (남서울산업대), 구유선(충남대), 김용환(양산대), 권희상(대전산업대), 이정민(서울대), 이현우(인 하대), 송경안(전남대), 최기용(광운대), 임경섭(동신대), 이광호(호남대), 류재근(광주대), 호광수 (조선대), 박효명(전남대), 박태규(전남과학대), 김철희(무궁화유치원), 신경구(전남대), 최승권(한 국전자통신), 정수영(광주여대), 이종근(목포대), 시정근(KAIST), 채명희(전남대), 송민영(고려 대), 김미숙(충북대)
- **준회원:** 송현석(서울대), 이진옥(충남대), 위혜경(연세대), 채숙희(서울대), 박병선(고려대), 차준 경(고려대), 최중주(조선대), 육청민(충남대), 정미애(혜전대), 이춘숙(고려대), 김대광(한국외대),

유승(연세대), 류석형(인하대), 성윤미(인하대), 채문희(인하대), 홍경하(인하대), 강민아(충남대), 김기형(충남대), 정병균(조선대), 김정오(조선대), 정혜인(조선대), 최석문(서울대), 서민정(부산대), 최동석(인하대), 김진영(경희대), 노승용(서울대), 김향숙(경희대), 이계연(한국외대)

- **기관회원:** 조선대학교, 위덕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양대학교(안산학술정보관), 한경대학교, 경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 초당대학교

㊤ PACLIC 15 논문 초록 모집:

제 15차 PACLIC 학술대회가 이번에는 2월 1일-3일까지 City University of Hong Kong에서 개최됩니다. 6장짜리의 논문 초록을 11월 10일까지 pacllic.15@cityu.edu.hk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URL: <http://www.rcl.cityu.edu.hk/pacllic15> 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4회 대회에서와 같은 저희 학회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Latex 특강 및 CD 판매 안내

11월 정기 모임 때 Latex 특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류병래, 노용균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특히 저희 학술지는 Latex으로 조판하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이 이 기회를 통해 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일 특강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류병래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CD와 사용 설명서를 이번 10월 모임 때 원가로 판매할 예정이오니 구입하시어 설치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단 CD구입은 예약하신 분에게만 판매할 예정이오니 구입을 희망하시는 선생님들은 수요일까지 leri@kh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구구조문법연구회 안내

이번 학기 구구조문법연구회는 학회 당일 오후 2시30-5시까지 대우재단에서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한국어 주요 현상을 구구조문법내에서 분석하는 방법 및 문제점들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관심있는 많은 회원들과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자료 구입:** 아래 자료들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면 `필요한 자료들을 개인 정보와 (주소, 소속 등) 함께 HWP 혹은 Word 파일로 작성하신 후 간사(김진영, TEL: 961-0211, leri@khu.ac.kr)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목록은 소식지 30호에 있습니다.

1. 2000년 한국언어정보학회 학술대회의 논문/특강의 자료집(Proceeding): 가격 10,000원
2. 구구조문법 Background Reading 교재 (소식지 후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ESSLI Course Packages. 목록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제공해 주신 류병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회원소식:

- ◆ 박용진 회원께서 이번학기부터 전주대학교 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전공 조교수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 이정민-김정란 역 (2000)(재켄도프 Patterns in the Mind) [마음의 구조]를 대학사에서 출판하셨습니다.
- ◆ 이정민-김영화-강범모-남승호-이하규 (2000) [의미구조의 표상과 실현]을 소화출판사에서 출판하셨습니다.
- ◆ 이정민 교수님(서울대언어학과)께서 지난 9월 11일-13일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열린 2nd Int'l Conference in Contrastive Semantics and Pragmatics에서 Change of State/Creation Verbs in Korean and Other Languages--Problems of Degree, Telicity and Aspectual Shift 발표하셨습니다.
- ◆ 이기용 교수님(고려대)과 최기선 교수님께서(KAIST) 홍콩에서 개최된 ACL-2000(October 1-8, 2000)의 Tutorial on Morphology for Asian Languages에서 한국어의 전산형태론과 형태소 분석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 학회 동정: 이번 호는 연세대 이민행 선생님께서 ICOS-2 참관기를 게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워크샵 ICOS-2를 다녀와서 이민행(연세대)

. "전산의미론에서의 추론 Inference in Computational Semantics (ICOS)"에 대한 두 번째 워크샵이 올 7월29일부터 7월 31일까지 2박 3일동안 개최되었다. 이 워크샵은 독일의 중서부에 위치한 Saarland주의 수도인 Saarbrken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에서 개최되었는데, 지난해에 암스테르담에서 처음 시작된 이 모임은 전산언어학, 인공지능, 전산학과 논리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한 곳에 모아 자연언어에서의 추론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응용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한다.

올해의 워크샵에서는 세 편의 초청강연과 아홉 편의 논문발표가 있었으며, 이번 워크샵의 총 참가자는 28명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석진 교수와 최재웅 교수 외에 본인이 참가했다. 미국 Rochster대학의 전산언어학자 James Allen과 마찬가지로 영국 Edinburgh 대학의 Bonnie Webber 그리고 암스테르담 대학의 Christof Monz도 초청연사들이었는데, Allen이나 Webber처럼 20여년동안 전산언어학분야의 최정상을 지키고 있는 학자들을 조그마한 학회에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워크샵의 조직책임을 맡은 Johan Bos와 Michael Kohlhase의 역량에도 의존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개최시점이 매 2년마다 열리는 국제 전산언어학회(COLING) 직전이라는 시기적인 잇점에도 기인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워크샵 장소는 전산학 관련 국제학회가 1년 내내 열리는 독일의 고성(固城) Dagstuhl이었다. 이곳은 10년전부터 학술대회가 개최되고 있는 전문 학술대회장이며,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는 숙박과 식사가 함께 제공된다. 고색이 창연하여 무척 낭만적일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를 어지없이 무너뜨릴 정도로, 현대식으로 잘 개축되고 증축된 고성에는 24시간 개방되는 전산학분야 전문도서관과 담소를 하면서 와인을 마실 수 있는 와인홀, 아마추어 음악애호가들을 위해 피아노와 트럼펫과 같은 몇가지 악기가 갖추어져 있는 음악실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었다.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복사기를 사용하거나, 와인 등을 마실 때에는 등록시에 배부받은 종이위에 참가자 개개인이 사용한 복사량이나 와인 병의 수를 각자의 양심에 따라 써 넣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자율운영의 극치는 숙소내 개개인의 방문을 잠그지 않은데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마치 어떤 종교집단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동안은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수도승이 된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을 갖게 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 학술회의장이었다.

이제 워크샵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초청강연을 맡은 James Allen은 Rochster 대학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난 5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자동 대화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음성인식 및 음성합성이 가능하고 공간탐색능력도 갖춘 실제적인 시스템으로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화에 응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시스템의 핵심아이디어는 협동적인 문제해결과 상호작용을 모형화한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초청연사로 나선 Bonnie Webber는 자신이 20여년간 연구해 온 조음사 탐색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소개했다. Webber는 조음사의 연구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통적인 조음적 대명사, 지시적 명사구, "when"-절, "other"-구, "such"-구, 비교표현 명사 등 기능적 조음표현외에 "then", "for example", "otherwise", "neverthelss" 등 담화표지나 담화

연결사(connectives) 등 관계적인 조응표현도 조응성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분석절차를 소개해서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및 흥미있는 논쟁을 이끌어 냈다. 초청연사 Christof Monz는 정보검색분야에서 전산의미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정보검색의 유형과 의미표상 방법의 상관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 강연은 전산의미론의 응용영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것 같다.

서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세 개의 초청강연외에 아홉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논리학분야와 담화분야의 논문이 각각 4편이고, 의미론적인 주제를 다루는 논문이 1편이었다. 논리학적인 주제를 다룬 논문들중에는 "전제" 문제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증명절차와 모형간의 관계를 깊이있게 다룬 Tim Fernando의 발표가 상당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필리핀 국적의 동양인 Fernando박사는 "Journal of Semantics"와 "Linguistics and Philosophy"에 이미 여러 편을 발표함으로써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소장학자인데, 스탠포드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DRT의 창시자인 Hans Kamp에게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배경에 대해 뒤에 알게 되었다. 이 동양인과의 만남은 10여일 후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SICOLC 2000)에 참석한 Mamoru Saito 교수와의 만남과 어우러져 깊은 인상을 남겼다. Saito교수도 스탠포드대에서 학부를 마치고 역시 국제적인 명성을 누리는 몇 안되는 동양인이기 때문이다. 외에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논문은 이 대회에 공동조직위원장이기도 한 독일 Saarland 대학의 Michael Kohlhase가 Alexander Koller와 함께 발표한 "Towards A Tableau Machine for Language Understanding"이었다. 이 논문은 자연언어 이해과정을, 주어진 논리형태에 대한 모형생성의 과정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여 의미 화용론적인 주제에 속하는 한정표현, "bridging", "accomodation" 현상 등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였다. 이 발표자들은 후에 데모를 통해 자신들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시연해서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처럼 이 워크샵에서 발표된 논문들 대부분이 논리학이나, 언어학 혹은 전산학 등 어느 한 분야에만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학제간의 연구주제를 다룬 것들이었다.

모임의 규모가 작은 덕분에 전문가들과의 개인적인 교류기회가 많이 주어졌고 잠시나마 수도승이 된 기분을 가졌던 이번 워크샵을 뒤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논리학과 전산학적인 배경을 갖춘 의미론과 화용론 분야의 국제수준의 전문가가 앞으로 많이 배출되어, 유럽이나 미국의 전문가들과 공동의 관심주제에 대해 깊이있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연구활동 기반이 조성될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㉞ 발표논문초록

서술명사의 정의 기준 채희락(한국외국어대학교)

서술명사는 형태적 구성과 통사적 분포상으로 명사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품사상으로는 명사로 분류된다. 그렇지만 일반 명사와는 달리 서술명사 자체가 주어 및 그외의 외부 논항을 가지며 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동사적 속성도 가지고 있다. 채희락(1996)과 H-R Chae (1997)에서는 어떤 명사가 서술명사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그 명사가 명사구 바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자체 논항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는 통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체 논항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명사

는 서술명사로 관별된다. 반면에 홍재성(1999)은 서술명사를 "행위, 상태, 관계,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의 의미가 명사 범주로 나타난 표현"으로 의미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강범모(2000)는 주로 행위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만 서술명사가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논항의 의미적 타입에 입각한 의미적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관별된 서술명사는 일정한 통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통사적 관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분석은 명사에 의미적 타입을 부여할 때 객관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직관에 의하기 때문에 논리적 순환성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리고 제시된 통사적 기준도 예외가 많기 때문에 일종의 경향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관별 기준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문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통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명사화 구문의 제약기반 이론적 분석

김중복(경희대)

One of the main puzzles in Korean nominalization gerundive phrases (NGP) is that they display a mix of nominal and verbal properties. Korean NGPs also display verbal properties internally and nominal properties externally. Internally verbal properties come from the occurrence of a sentential adverb within the phrase, adverbial modification to the NGP predicate, the presence of the verbal negative marker before the predicate, free scrambling within the phrase, inheritance of the arguments from the lexeme verb, and so forth. Their externally nominal properties are also found in various syntactic environments: The NGP occurs in NP positions and takes nominal affixes like a postposition, conjunction and case marker. In capturing these mixed properties, I propose a new constraint-based, constructional analyses that allows a close interaction between morphological and syntactic constraints with the system of 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 The mechanism of multiple inheritance hierarchy allows a succinct way of encoding generalizations about lexemes and phrases, while eliminating unnecessary stipulations. It further provides a clean, streamlined way of capturing the mixed properties of Korean NGPs that are in several respects different from English counterparts. This allows a simpler grammar for Korean.

Argument Transfer and Argument Composition:

A Constraint-based Approach to Multiple Verbal Noun Constructions

류병래 (충남대학교)

본 논문은 한국어의 동사성 명사구문 (Verbal Noun Constructions) 혹은 경술어 구문으로 알려진 문장에서 동사성 명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된 논항들이 명사구와 문장층위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우선 하나의 동사성 명사가 경동사인 '하다'나 '되다'와 결합하여 일종의 복합술어를 형성할 때, 동사성 명사가 하위범주화하는 요소들이 실현되는 양상에 대한 경험적인 일반화를 피하고 그 양

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제약기반이론의 틀 안에서 제안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나아가서 두 개 이상의 동사성 명사가 하나의 경술어와 결합하는 경우, 동사성 명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된 요소들이 어떻게 복합술어 전체의 하위범주화 특성과 연동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따라서 '다중 동사성 명사 구문' (Multiple Verbal Noun Constructions)의 논항실현 양상을 이론 중립적으로 분석하고, 이 분석을 제약기반 문법이론인 최근의 핵심어주도 구구조문법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틀 안에서 형식화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기본적인 논지로 주장하고 있다. 첫째, 한국어의 동사성 명사구문은 동사성 명사와 경술어가 결합해 복합술어를 형성하는 구문이고, 이 때 동사성 명사에 의해 하위범주화된 요소들이 명사구 실현될 수도 있고, 동사성 명사의 하위범주화 틀이 일부 혹은 전부 경술어의 하위범주화 틀로 전이되어 문장 층위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명사구내에서 실현되는 요소들은 실현되는 순서에 강한 제약이 있고, 그 제약은 '사격성 위계'의 순서와 같다. 이 양상을 '논항전이' (Argument Transfer)라는 이론적 장치를 이용해 형식화할 수 있다. 둘째, 복합술어가 두 개 이상 연속으로 등장하는 경우 각각의 하위범주화 틀이 합성되어야 하는데, 이 합성의 원리는 단순한 합성이 아닌 합성명사의 핵심어가 함수가 되는 핵심어-보충어 관계를 이루는데, 이 관계를 '논항합성' (Argument Composition)이라는 이론적 장치로 형식화해 제안한다. 셋째, 동사성 명사가 명사이면서 동사와 같은 혹은 유사한 하위범주화 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술하기 위해 다중계승 유형위계 (Multiple Inheritance Type Hierarchy)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이 위계를 이용해 명사이면서 동시에 비어 있지 않은 고유의 논항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사성 명사의 문법적 특성을 잘 포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넷째, 다중 동사성 명사구문의 논항 실현과정에서 보이는 겹겹표지는 한국어에 특이하게 존재하는 '격복사' (Case Copying) 과정에 의해 분석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동과 능동에서의 하위범주화된 요소들의 격변화가 자의적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한다.

대격 구절(Accusative Phrases)의 용법: 주제화의 대격 박병수 (경희대)

대격 표지가 직접 목적어 표지 이외에 어떤 다른 기능을 하는가를 밝혀 보려고 한다. 대격 표지가 명사 구절이 아닌 구절, 특히 부사 구절에 붙는 현상을 집중적으로 다룬 Wechsler & Lee (1996), Chae (1999), Kim and Maling(1993), Maling (2000) 등을 검토한다. 이들 기존의 견해에 문제점이 없는가를 살피고 대안의 가능성을 찾는다.

Wechsler & Lee는 "툼은 두 시간 동안을 달렸다. 툼이 이십 마일을 달렸다. "툼이 미국을 두 번을 방문했다" 등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이 모두 부사 구절에 대격이 붙은 것으로 보고 그것들을 상황 한정사 (Situation Delimiter)라는 의미 통사적 기능을 한다고 제안했다. Chae (1999)도 한정사를 도입하는 것은 이와 유사하나, 그것을 후치사에 첨가되는 것으로 보는 점이 다르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다"를 "계단에 올라가다" 또는 "?계단에서를 올라가다"의 뜻으로 분석해야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계단에 올라가는 것이나 계단에서 올라가는 것과 다른 동작이다.)

(1) 이런 대격 구절 <경과된 시간>이나 <걸쳐진(covered) 거리> 등을 뜻하는 직접 목적어(direct object

complement)로 볼 수 있다. (Cf. "종각에서 신촌까지 십리를 한 시간 동안을 달렸다, (종각에서) 신촌까지를 달렸다, 신촌까지를 달렸다, 종각에서 신촌까지 한 시간을 달렸다, 종각에서 신촌까지를 한 시간 동안을 달렸다, *종각에서 달렸다 [‘에서’가 지점일 때 비문이고, ‘에서’가 장소면 정문임], (종각에서) 신촌으로(*를) 달렸다, *신촌으로를 달렸다" 등등)

(2) '두 번을'과 같이 빈도 부사에 대격이 붙은 경우를 한정사라고 하고 있으나, 이를 전통적인 주제화 현상의 하나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순이는 그후 평생을/*이 톰이 좋았다"에서 '평생을'은 "순이는 철수를 팔을/*이 잡았다"의 '팔을'이나 "인호가 TV를 세 시간 (동안)을/*이 보았다"의 '세 시간 (동안)을'과 같이 일종의 주제이다. ('팔은'이나 '세 시간 동안은'과는 구별되는 주제.) 그러나 과연 한정사의 개념이 주제의 개념의 특별한 한 가지인가 하는 문제는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잘못된 분석에서 발생하는 문제 아닌 문제도 있는 것 같다. "아이는 젓 먹는 동안이/*을 귀엽다, 이 방은 낮 동안이/*을 밝다" 등의 경우는 한정사나 주제와 무관하다. '젓 먹는 동안'이나 '낮 동안'은 각 문장의 주어일 뿐이다. 다만 "나의 할머니는 평생이/을 고왔다"와 같은 문자에서 '평생을'은 주제로 보면 문제가 없으나, '평생이'가 문제다. 그 문장이 정문이라면, 아마 "할머니의 평생이 고왔다"는 문장과 관련된 coercion현상의 일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00학년도 2학기 연구 발표 계획>

장소: 대우재단 세미나실 일시: 토요일 9:30-12:30분

날짜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10월21일 (토)	일반논문 9:30-10:10	채희락 (외대)	서술명사의 정의와 분류	문승철 (항공대)
	일반논문 10:10-10:50	김종복 (경희대)	한국어 명사화 구문의 제약 기반 이론적 분석	
	휴식(10분)			
	일반논문 11:00-11:40	류병래 (충남대)	Argument Transfer and Argument Composition: A Constraint-based Approach to Multiple Verbal Noun Constructions	
	일반논문 11:40-12:20	박병수 (경희대)	대격 구절(Accusative Phrases) 의 용법: 주제화의 대격	
11월18일 (토)	일반논문 9:30-10:10	이익환 이민행 (연세대)	담화구조와 담화상에서의 시 간관계(Discourse Structure and Temporal Relations on Discourse Level)	최병진 (목포대)
	일반논문 10:10-10:50	이기용 (고려대)	한국어 수동형의 전산적 처 리	
	휴식(10분)			
	특강 11:00-11:50	류병래 (충남대)	특강: LaTeX I	
	특강 12:00-12:50	노용균 (충남대)	특강: LaTeX II	
12월 16일 (토)	일반논문 9:30-10:10	이해운 (서울대)	Topic and Quantifier Phrase	최규수 (부산대)
	일반논문 10:10-10:50	이정민 (서울대)	중국어의 대조적 화제와 shir	
	휴식(10분)			
	일반논문 11:00-11:40	최재웅 (고려대)	특수조사 -만의 연계초점과 작용역	
	일반논문 11:40-12:20	김운용 (외대)	문법화와 이태리어 접어	

<2000년 2학기 구구조문법 연구회 워크샵>

장소: 대우재단 세미나실 일시: 토요일 2:30-5:00

날짜	시간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10월21일 (토)	2:30-3:30	김종복 (경희대)	Complements/Adjuncts in HPSG	김용범 (광운대)
	휴식(10분)			
	3:40-4:40	채희락 (외대)	Complements/Adjuncts in Korean	노용균 (충남대)
11월18일 (토)	2:30-3:30	조세연 (호남대)	Case in HPSG	임경섭 (동신대)
	휴식(10분)			
	3:40-4:40	유은정 (서울대)	Case in Korean	정재현 (충북대)
12월 9일 (토) 충남대	2:30-3:30	이동영 (세종대)	Agreement in HPSG	김경학 (수원대)
	휴식(10분)			
	3:40-4:40	박병수 (경희대)	Agreement in Korean	장석진 (서울대)

*21일 Background Reading 자료

Bouma et al. (2000). Satisfying constraints on Extraction and adjunction. To appear in NLLT

Chae, H.R. (1999) Complements and Adjuncts. 현대문법연구